

Lampas 옛기출 모의고사 1회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①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②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폐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③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⑦'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④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⑤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역사는 익명의 대중이 이끄는 것이다.
- ② 역사는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진보해 온 과정이다.
- ③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역사는 우연의 지배를 받으므로 편연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 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을 것이다.

2. ⑦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하여 효행을 선양한다.
- ②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지폐 도안에 활용한다.
- ③ 역사 소설을 읽고 실제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 본다.
- ④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다.
-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널리 알린다.

3. <보기>는 역사에 대한 헤겔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였을 때,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단일 실제처럼 보이는 역사는 사실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지 않는다. 역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우연히 타인의 방향성과 일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출발점은 다수의 행복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 ① 윗글은 헤겔과 같이, 역사를 이끄는 힘은 이성에 있다고 보았다.
- ② 윗글은 헤겔과 같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역사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윗글은 헤겔과 같이, 역사학에서 사회적 목적의 민족정신은 실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윗글은 헤겔과 달리, 역사 형성의 의도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를 이원화하지 않았다.
- ⑤ 윗글은 헤겔과 달리, 역사의 목적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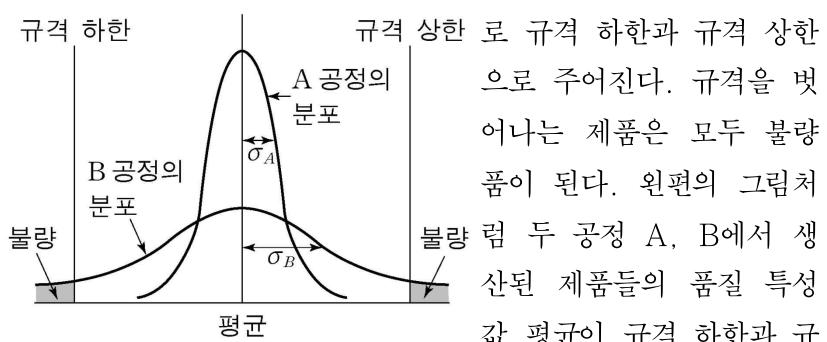
4. ①~⑤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 ② ② : 본을 받을 만한 대상.
- ③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 ④ ④ : 사물의 결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⑤ : 가장 높은 위.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⑦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구분된다.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원천의 그림처럼 불량률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⑧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 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 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 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 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 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 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⑨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 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④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6. ⑦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②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③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④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⑤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국어 영역

3

7.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①, ②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보기>

- 가. 정의 단계 :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 나. 측정 단계 :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 다. 분석 단계 :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 라. 개선 단계 :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 마. 통제 단계 :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① | ② |
|---|---|
| 가 | 나 |
| 라 | 라 |
| 다 | 다 |
| 마 | 라 |
| 나 | 마 |

8.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270만 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5개 월 100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63,00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2.5일 100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57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0분 100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2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6초 100년	네 결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재개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⑦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9.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10.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11.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12.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13. ‘반론권’ 제도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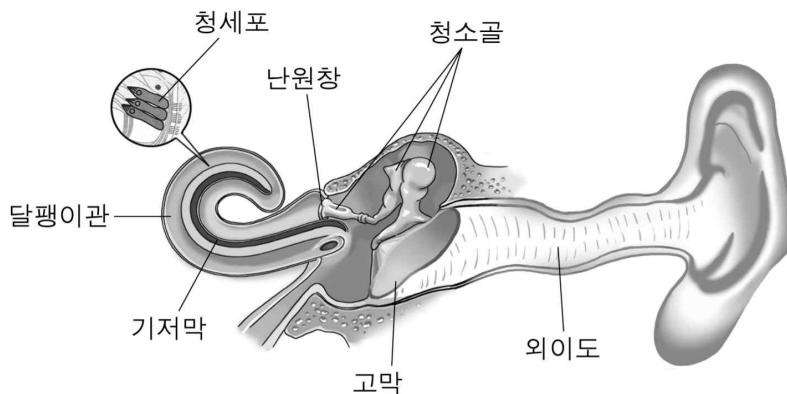
- ①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권을 행사하더라도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없다.
- ② 경쟁 언론사에서 반론권 제도를 악용해 순수한 의견에도 무분별하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무기대등원칙을 역으로 해칠 수 있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한다면 개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 ⑤ 반론권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일반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받을 수 없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 (f_1 과 f_2 , $f_1 < f_2$)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f_x = 2f_1 - f_2$, $x =$ 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①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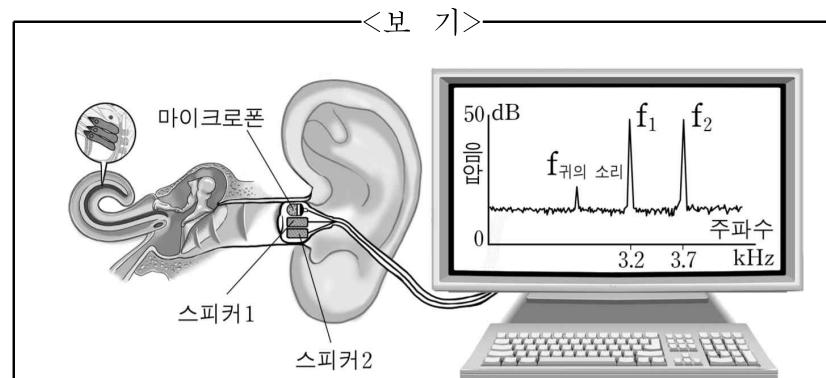
14.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 ②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귀의 소리’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신생아의 경우, 체내에 청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청세포에서 발생한 ‘귀의 소리’는 기저막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된다.
- ⑤ 달팽이관이 손상될 경우, 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15. ⑦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다.
- ②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 ③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④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다.
- ⑤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16.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귀의 소리’는 f_1 ,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 소리, ‘귀의 소리’이다.
- ④ f_1 이 3.2 kHz, f_2 가 3.7 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kHz에서 가장 크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17. ⑦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을 할 경우
- ②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을 찾아내려 할 경우
- ③ 청력 측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 경우
- ④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의 청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 ⑤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의 청력을 평가할 경우

6

국어 영역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땅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인가
백골이 우는 것인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인가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틀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복이 ⑦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B]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멀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C] 햇빛의 꽂꽂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잊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뺏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D] 멀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멀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E]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멀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멀치』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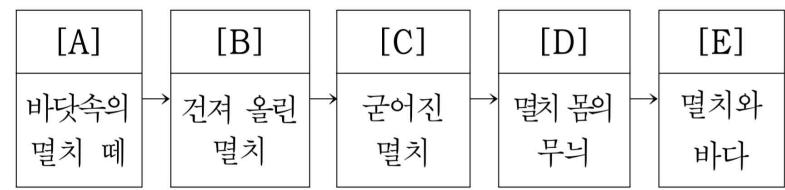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0. (나)의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A]에서 멸치 때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꽃꽃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댁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끄러미 화산댁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댁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헌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댁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훔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짚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짚세기가 화산댁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통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 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⑦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려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댁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던 화산댁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꾀죄죄 때 묻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묵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페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댁이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둘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횃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뒷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쫄.’ 돌아눕는다. ⑤건년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댁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댓잎처럼 긁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A]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쪽풀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입고 있는 말며느리, 화산댁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눕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 아들 돈 잘 벌고 하리깔레* 메누리 뺐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양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뼈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댁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졌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땡기더니.’

화산댁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샐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댁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빛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⑥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댁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 대고 뒤를 보았다. ⑦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훤하면 나와서 뒤흔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댁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썼다. 아들 내외가 낄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흔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⑧아침에 봄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댁이』 -

* 저거 조면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하리깔레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적산집 :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2. ‘화산댁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 ③ 예의가 없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23.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 ②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 ③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자연시킨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국어 영역

24. <보기>를 참고할 때, ①~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3점]

<보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화산댁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 ① 짚세기 : 고무신
② 초가집 : 적산집
③ 토벽 : 흙가루 벽
④ 갈자리 방 : 다다미방
⑤ 수채 : 뒷간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①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②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A]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③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 텔이 흘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겸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례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 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④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라.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되 삼고초려한 유황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앉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 관데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⑤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둑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랍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B]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앓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려라.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⑥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겸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견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
 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삐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④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대 : 낚시터.

* 명감 :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26.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빌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
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27.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
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낫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봄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28. <보기>를 참고할 때, ④~⑥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
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
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꾸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
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① ‘승상’은 ④에 봄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⑤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 ② ④는 ⑥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④에서 본 ‘청룡’은
⑥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③ ④와 ⑤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④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⑤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④ ⑥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⑥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⑥에 ④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④도
함께 사라졌군.

29. ⑦의 화자에게 ⑨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 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괴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鶴)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
하여 풀덕 뛰여 내낫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낸식만경 애혈*질 번 하쾌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애혈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궂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產)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으마 ⑦윤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낸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볕을 언제 보라
방아를 못 쟁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⑨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⑩살림 살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옥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깊주리는가
⑪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였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⑫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고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⑨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어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30.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1.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2.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꿩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마라.
-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곁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냐
아마도 겉 회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벌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 ⑤ 장공에 떴는 솔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썩은 죄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3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웃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34.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다)

신은 삼가 성상께 글을 올리옵니다. 성상의 바른
다스림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살아갈 수 있었사옵
니다. ① 성상께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성상의
뜻과는 달리 ②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또한 ③ 지방관들은 백성을 사
사로이 부리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서리나 아전들
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사옵니다. 이에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사옵니다. ④ 백성이 있어야 성상께서
도 군주가 되시옵고, 벼슬아치들도 살 수 있는 것이
옵니다. 하오니 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
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제 1 교시

1

[35 ~ 37]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QR 코드에 대해 발표할 ○○○입니다. 최근 QR 코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나요? (사진 1을 보여 주며) 이 사진에서처럼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QR 코드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QR 코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QR 코드는 명암에 따라 빛의 반사량이 다르다는 원리가 이용 된다는 점에서 바코드와 유사합니다. (표를 보여 주며) 하지만 표에 제시된 것처럼 바코드가 가로로 된 1차원적 구성이기 때문에 주로 간단한 숫자 정보만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달리, QR 코드는 가로와 세로의 2차원적 구성이어서 이미지나 동영상과 관련한 정보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고) 보신 것처럼 QR 코드는 상품 홍보, 결제, 웹 사이트 연결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QR 코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2를 제시하며) 우선 QR 코드는 밝은색과 어두운색 모듈들의 집합으로, 여기 가장 작은 한 칸의 사각형이 바로 모듈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진 2를 확대하며) 잘 보이시죠? 이런 모듈들로 구성된 QR 코드는 인코드화 영역과 기능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코드화 영역은 정보가 담긴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 수가 늘어날수록 인코드화 영역에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QR 코드의 크기도 커집니다. 모듈 수가 가장 많은 QR 코드 버전은 숫자는 7,089자, 한글은 1,817자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돋는 기능 패턴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3을 제시하며) 여기 QR 코드 상단 양쪽 끝과 왼쪽 하단을 보시면 큰 사각형 형태들이 보이는데요. 이 세 개의 형태들은 QR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도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해 주는 위치 탐지 패턴이라고 합니다. 위치 탐지 패턴은 QR 코드의 버전이 달라지더라도 크기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위치 탐지 패턴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은 사각형 형태를 정렬 패턴이라고 합니다. 정렬 패턴은 QR 코드가 곡면 등에 인쇄되어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탐지 패턴 사이의 밝은색과 어두운색 모듈이 하나씩 교대로 나타나는 부분을 타이밍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은 다른 모듈들의 위치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QR 코드의 버전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QR 코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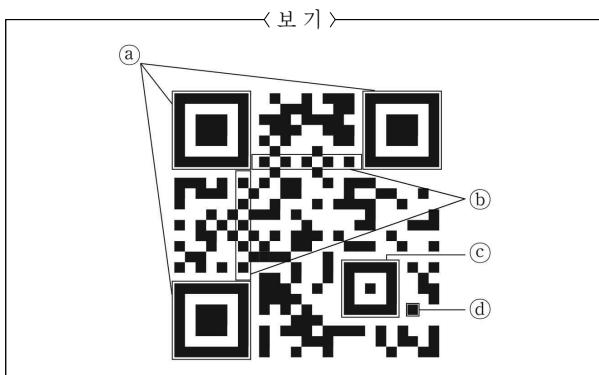
- ① 발표 제재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② 발표를 통해 배운 점을 실천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발표 제재의 선정 이유를 도입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⑤ 발표를 마치며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를 위해 준비한 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의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제재의 특성 분석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 바코드의 원리와 비교 가능함.
청중의 특성 분석	Ⓒ QR 코드의 용도를 궁금해함. Ⓓ QR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름.
발표 장소의 특성 분석	Ⓓ 교실 구조상 자료 화면이 뒤쪽까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① Ⓐ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QR 코드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을 고려하여, QR 코드와 바코드는 빛을 이용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표’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을 고려하여, QR 코드의 다양한 용도를 알려 주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을 고려하여, QR 코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진 2’와 ‘사진 3’을 활용하고 있다.
- ⑤ Ⓔ을 고려하여, 교실 뒤쪽까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2’의 크기를 조절하여 활용하고 있다.

37.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있어 거꾸로 놓여 있는 QR 코드도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겠군.
- ② Ⓑ를 통해 Ⓒ의 위치 정보와 QR 코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가 있어 둥근 유리병 표면에 부착된 QR 코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겠군.
- ④ Ⓕ의 수가 늘어나 QR 코드 크기가 커지면 Ⓐ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군.
- ⑤ Ⓐ, Ⓑ, Ⓒ는 모두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패턴들이겠군.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8 ~ 41] (가)는 고전 읽기 동아리 활동 중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3'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번 모임에서 오늘은 「홍길동전」과 영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우선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자. (학생 2를 가리키며) 먼저 이야기해 볼래?

학생 2: 나는 홍길동이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에서 영웅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어.

학생 3: 나도 홍길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에서는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홍길동의 행동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홍길동이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고, 그건 잘못이잖아.

학생 2: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부정부패한 세력에 저항하는 소설 속 홍길동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를 도적이나 아닌 의적이라고 불렀던 것이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홍길동전」이 고전으로 읽히는 것도 그런 홍길동의 행동이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A]라고 생각해.

학생 3: 물론 많은 사람들은 권력층의 부당한 횡포를 저지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응원했겠지. 하지만 법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법을 어긴 홍길동의 행동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학생 1: 다른 사람을 돋는다는 점에서 홍길동에게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은 둘 다 인정하지만,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학생 3을 가리키며) 이번에는 네가 먼저 얘기해 볼래?

학생 3: 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 홍길동이 진정한 영웅이라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정의로웠어야 해.

학생 2: 진정한 영웅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영웅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와 생각이 좀 달라. 나는 홍길동의 행동이 사회 규범에 어긋났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돋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용기 있는 그의 행동은 정의로웠다고 생각해.

학생 1: 너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구나. 혹시 더 할 말 없어?

학생 2: 얼마 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용감한 시민에 대한 방송을 봤어. 물론 선로에 사람이 들어가는 자체는 법을 어긴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영웅이라고까지 하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학생 3: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소설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학생 1: 그러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홍길동전」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다음 모임 때 발표해 보자.

학생 2, 3: 좋아.

(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영웅'이라고 하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홍길동전」의 주인공 역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정부패한 권력층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불의에 맞서 의적 활동을 펼쳐 영웅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나는 홍길동이 진정한 영웅이 되기에는 아쉬운 점 있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어겨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보니 불가피하게 사회 규범을 어겼지만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 역시 그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홍길동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설이 아닌 현대 사회 속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소설 속 홍길동이 발휘한 용기에 주목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 용기는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먼저 구해 주는 분들의 희생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분들의 봉사는 용기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동아리 활동은 「홍길동전」과 영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이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주변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38. 다음은 '학생 1'이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동아리 활동 시작

- 지난 활동에서 결정된 주제 환기하기 ①
- 발언자의 순서를 지정하기 ②

◎ 동아리 활동 진행

-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을 유도하기 ③
- 대화의 내용 정리하기 ④

◎ 동아리 활동 마무리

- 다음 모임의 활동 내용 제안하기 ⑤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

39.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학생 2’는 질문을 통해 ‘학생 3’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② [A]의 ‘학생 3’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③ [B]의 ‘학생 2’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측하면서 ‘학생 3’이 제시한 정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의 ‘학생 2’와 [B]의 ‘학생 3’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지닌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A]의 ‘학생 3’과 [B]의 ‘학생 2’는 모두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40. ‘학생 3’이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웅의 일반적 의미를 설명하며 다른 영웅보다 정의로운 흥길동의 행동을 부각해야겠군.
- ② (가)에서 언급된 ‘흥길동전’의 내용을 활용하여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돋는 흥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③ (가)에서 언급된 정의로움에 대한 ‘학생 2’의 견해에 공감하며 흥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드러내야겠군.
- ④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군.
- ⑤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며 흥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활동의 의의를 강조해야겠군.

41.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해 학생들이 조언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 동아리 활동은 「흥길동전」과 영웅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흥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전을 읽으면 현대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주변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 ①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 중 하나를 삭제하는 건 어때?
- ②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은 삭제하는 건 어때?
- ③ 너의 생각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추가하는 건 어때?
- ④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네가 결심한 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
- ⑤ 제목과 관련해 앞 문단에서 제시한 너의 생각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누락된 내용을 찾아 추가하는 건 어때?

[42 ~ 45] (가)는 교지에 실린 조사 보고서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학교 신문에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면’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실태 조사

I.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수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수면에 대한 인식 및 수면의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II. 본론

1. 수면에 대한 인식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5%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91%의 학생이 ‘피로를 풀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2. 수면 실태

실태 조사는 앞서 수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항목을 각각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는가?’라는 질문에 61%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휴대폰 사용(62%), TV 시청(20%), 공부(16%), 기타(2%) 순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면 후 충분히 피로가 풀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75%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92%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III. 결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면의 양이 부족하고, 수면의 양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도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61%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외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생들도 수면 후 충분히 피로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 학교에는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학생들이 많아 수면 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몸은 적절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피로해진 몸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수면 계획을 세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둘째,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수면의 질은 수면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잠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

잠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⑦ 학교에서는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42.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분	내용
설문 조사 계획	-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해야겠어. ①
	- 설문 항목을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로 구성해야겠어. ②
	-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에 대한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을 제시해야겠어. ③
보고서 작성 계획	- 서론에 조사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 본론에 설문의 응답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제시해야겠어. ④
	- 결론에 수면 실태가 수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야겠어.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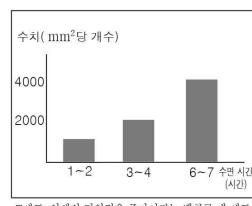
43.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통계 자료

② 국가별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

국가	평균 수면 시간
한국	6시간 3분
일본	7시간 30분
미국	8시간 12분
OECD 평균	8시간 22분

④ T세포 활성화 수치



[자료 2] 연구 자료

생체 호르몬의 일종인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어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저하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 기기 화면에서 방출되는 빛에 2시간 노출되었을 때 멜라토닌의 분비가 노출 전보다 22% 정도 억제된다고 나타났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의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의 활성을 방해하는데, 이로 인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지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다가 깨는 빈도를 높여 수면의 질도 낮춥니다. 따라서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자료 1-⑦]를 활용하여, 외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멜라토닌 분비량이 빛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 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자료 1-④]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추가한다.

44. <조건>에 따라 ⑦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⑦에 제시된 교육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①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②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해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③ 수면 시간을 줄이면 여러분의 몸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④ 잃어버린 수면의 질은 결국 당신의 건강을 앗아갑니다.

⑤ 달님도 꿈꾸는 늦은 밤에 당신도 꿈꾸고 있나요?

4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